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St. Leo Catholic Church, 221Hanford St. Columbus, OH 43206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소식

◆ 교회 전례력으로 나해가 끝나고, 다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시기동안 전 신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구역별 가정기도를 통해 각 가정의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구역별 대림환 가정고리 기도안내

- 11/29(일)부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림시기동안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구역별로 대림환을 모시고 가정고리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역별 신자들께서는 구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날짜에 각 가정에 대림환을 모시고 준비되어있는 기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뜻깊은 대림시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령성월 위령기도 안내

- 미사중 공지사항때, 전 신자들이 함께 연영회 주도로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 본당 사무담당 기금 마련 가을 음악회 DVD 판매

- 성가대 가을 음악회를 녹화한 DVD를 사무담당에서 제작, 판매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본당 사무담당 사무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신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황석두 구역모임

- 일시: 12/5(토) 저녁 6시 30분
- 장소: 고상식(야고보) 형제님 덕

◆ 제의 및 성물 봉헌안내

- 새로 옮겨진 성당에서 미사나 신심 행사들에 필요한 제의와 성물을 봉헌 받습니다. 봉헌하실 신자들께서는 담당자인 전례위원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례위원장 (조 글라라:614-425-2534)

◆ 대건회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

- 본당 활동과 행사에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건회'의 준비모임을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12/13(일) 주일미사 후, 사제관
- 담당자: 박종면 미카엘 (614-596-5677)

◆ 성탄 판공성사표 배부

-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미사 후, 사무 담당을 통해서 판공성사표를 배부받으셔서 각 가정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판공성사는 대림 첫째주부터 미사 전후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와 아리랑 식품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 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4,880 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감사헌금: 문승태

주 일 헌 금	\$614.03
교 무 금	\$140.00
감 사 헌 금	\$200.00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대림 제1주일 November 29, 2009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18세기경, 자수, 서덕 대성당, 런던, 영국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3,14-16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화답송



제 2 독서 사도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3,12-4,2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 루카 21,25-28,34-36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220단 2명	27,592단 197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20단 2명	22204 - 11/22/09 (298주)

♣ 총누계: 222,580단 12,832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1월 29일	12월 6일
해설자	서경환	박귀영
독서/봉헌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증거자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91 ♫ 봉헌: 212
 ♫ 성체: 151, 161 ♫ 파견: 92

기다림과 충만함

이규성 토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어느덧 대림절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기간인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잘 영접하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성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 현재의 자신을 의미 있게 꾸미고자 하는 때인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은 이미 우리 현실을 뜻깊게 가꾸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보다는 조금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같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분주한 상황 속에서는 기다림이란 매우 낯설고 불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것은 마치도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쁜 내가 남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남을 기다리는 것은 참을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조금해졌고, 그만큼 정신적인 여유 없이 각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는 하나 급속히 변화해가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고자 하니 자신에 대한 반성과 속고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가운데 어디론가 가야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세상은 매우 역동적으로 보이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한 삶의 반복인 듯 보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는 마치도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 없이 바쁘고 급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며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길을 살피게 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득히 채워주려고 말입니다.

안 내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라파엘),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분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분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니다.

◆ 청년 협의회 안내

- 성가대와 레지오가 합쳐져서 청년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년 협의회를 이끌어 가주실 간부들이 아래와 같이 임명되었습니다.
- 회장: 박필성(바오로)
- 부회장: 양희진(에밀리아) 윤정환(스테파노)
- 총무: 이슬보라(엘리사벳)
- 서기: 김환 (스테파노)